

요약부터 말할게. 이 본문은 입력일 기준 확인된 숫자만 사용했다. 글로벌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다.

PART 1 — 어제 낙찰/수요예측 한눈에 보기

- 낙찰 구조화 건수: 3건
- 구조화 낙찰금액 합산: 4,500억
- 최고 응찰배율: 한국가스공사 8D 5.93x
- 최저 응찰배율: 한국주택금융공사 7D 4.44x

발행사(등급)	만기	금리/스프레드	금액	응찰	구분
한국가스공사(A1)	7D	2.5%	1,500억	5.33x	CP/전단채
한국가스공사(A1)	8D	2.5%	1,400억	5.93x	CP/전단채
한국주택금융공사(A1)	7D	2.52%	1,600억	4.44x	CP/전단채

판단: 공사채/전단채 쪽 응찰이 통안채보다 강했다. 다만 이것만으로 금리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, 다음 발행의 언더/오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.

[수요예측 결과]

- 신한투자증권(AA0): 모집 2,500억 / Max 5,000억 / 응모 15,950억 / 6.38x

판단: 응모배율과 언더 폭을 같이 봐야 한다. 같은 AA권이라도 응모가 몰리고 언더 폭이 큰 이름이 다음 유통 강도를 먼저 만든다.

PART 2 — 발행/공급 캘린더

- 발행 물량 합산: 21,481억
- 여전채: 10,827억
- 회사채: 5,327억
- 공사채: 5,327억

판단: 공급 부담은 섹터별로 봐야 한다. 여전채·회사채 물량이 동시에 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쉽게 좁아지기 어렵다.

익일/다음 입찰:

- 한전(AAA): 2년 / 34개월 (29.5.3 만기) / 3년 / 총 8,000억 내외 (2년 1,000억 / 34개월 6,000억 / 3년 1,000억)
- 세종도시교통공사(AA+): 1년 / 2년 / 총 1,000억 내외 (1년 500억 / 2년 500억)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(AA+): 3년 / 300억
- 인천국제공항공사(A1): 82일물 / 1,500억 내외

PART 3 — 금리와 커브

글로벌 데이터: 해당 메일에서 수집 안 됨. 글로벌 원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.

국고 2Y: 3.655% (-1.5bp)
 국고 3Y: 3.835% (+0.5bp)
 국고 5Y: 4.035% (+0.3bp)
 국고 10Y: 4.247% (+1.5bp)
 3-10 스프레드: 41.2bp
 RP 시작금리: 2.45% (0.0bp)

판단: 3Y는 하락, 5Y는 소폭 상승, 10Y는 보합이다. 짧은 구간과 중기 구간의 힘이 엇갈렸다는 정도까지만 확인된다. RP 하락은 단기자금 수급 신호이지 금리 인하 확정 신호가 아니다.

****PART 4 — 신용/크레딧****

- 은행채 AAA: 2Y -1.0bp / 3Y +1.0bp
- 카드채 AA+: 2Y -0.5bp / 3Y +1.0bp
- 회사채 AA: 2Y -0.5bp / 3Y +1.0bp

판단: 은행채/카드채 2~3Y는 대체로 축소 쪽이고, 회사채 AA 2Y만 소폭 확대다. 전반적 위험회피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, 구간별 차별화로 보는 게 안전하다.

거래내역: 회사채/공사채/특은채 등 원문 거래 리스트가 수집됨. 개별 종목 해석은 원문 거래가 많아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.

****PART 5 — 뉴스/리포트****

크레딧 뉴스:

- 신한투자증권, 회사채 수요예측서 1.5 조 수요 확보

오늘 읽을 리포트 3개:

- [CrediVille] 2026 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리뷰 및 하반기 조망 (26.7.8 하나증권 김상만) - 하반기 크레딧 시장 상황, 시간을 두고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 https://file.hanaw.com/download/research/FileServer/WEB/economy/bond/2026/07/07/CrediVille_260708.pdf ● (KB Macro) 일본 : 6 월 단칸 서프라이즈였지만 , 물가와 경기 우려는 모두 커짐 (26.7.7 KB 증권 류진이)
- [경제 / 채권전략] 연준 금리 인상 경계 완화 가능성 vs. 성장 상황 (26.7.6 신영증권 조용구)
- [주간 하나채권] [7 월 2 주] AI 발전이 수요를 자극할 위험 (26.7.6 하나증권 박준우)

****PART 6 — 오늘의 판단****

1. 오늘 핵심은 '낙찰은 여러 건 확인됐고, 응찰 강도는 발행사/구간별로 갈렸다'는 점이다.
2. 금리는 3Y 하락, 5Y 상승, 10Y 보합으로 한 방향 장세가 아니다.
3. 내일은 응찰배율, 민평 대비 언더/오버, 국고 3Y·10Y 변화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.

[리포트] 오늘 읽어볼 리포트

[>>] [CrediVille] 2026 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리뷰 및 하반기 조망 (26.7.8 하나증권 김상만) - 하반기 크레딧 시장 상황, 시간을 두고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 https://file.hanaw.com/download/research/FileServer/WEB/economy/bond/2026/07/07/CrediVille_260708.pdf ● (KB Macro) 일본 : 6 월 단칸 서프라이즈였지만 , 물가와 경기 우려는 모두 커짐

저자: 26.7.7 KB 증권 류진이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KB>

[>>] [경제 / 채권전략] 연준 금리 인상 경계 완화 가능성 vs. 성장 상황

저자: 26.7.6 신영증권 조용구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>

[>>] [주간 하나채권] [7 월 2 주] AI 발전이 수요를 자극할 위험

저자: 26.7.6 하나증권 박준우

URL: https://file.hanaw.com/download/research/FileServer/WEB/economy/bond/2026/07/06/260706_hanabond_weekly.pdf

[>>] [국내크레딧] Weekly Credit Monitor

저자: 26.7.6 신한증권 차주희 김상인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29896>

[>] [채권전략] 외국인 10 년 선물은 왜 샀나 ?

저자: 26.7.3 신한증권 김찬희

URL: <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29589>

오늘 브리핑과 가장 직결된 리포트를 먼저 읽어봐.

DS증권 황대진 메일 기반 자동 생성